

01 FTA 포커스

새로운 한·중 세관협력으로, 수출기업 혜택 확대 -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 체결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기획관 이명구

1. 의의

관세청은 올해 7월 3일 서울에서 한·중 정상이자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Strategic Cooperation)」(이하
"전략적 협력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관세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중국시장이 진출해 피트너와 소통할 때는 '관계
(관사) 대화를 잘 해야 된다고 한다. 관세청이 이번
약정체결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도 관계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해 6월 북경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꾸준히 확대돼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한·중 FTA 등 지역

2. 전략적 협력 약정의 주요내용

전략적 협력 약정은 한·중 FTA 등 동아시아 지역
에서의 자유무역 확산 등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촉진, 무역
안전 및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강화 약정을 의미한다.

전략적 협력 약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AEO MRA 이행협력 ② 특허원산지 자료교환
③ 무역통계 교환 ④ 불법·부정무역 단속 ⑤ 인적
지원 개발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EO MRA 이행협력 관련, 이번 약정을
통해 양국 세관당국은 한·중 AEO MRA의 원활
한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AEO MRA
제도 발전 및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특허원산지 자료교환관련,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양국 세관당국 간 원산지분야 협력체제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올해 연말 내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한·중 FTA가
체결되는 경우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이번 약정 체결의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조기구축과 동시에 한·중 FTA 발효 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교환과 수입물품에 대한 특허
관세 적용실적 교환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보교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국 세관
당국은 전자적 자료교환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무역통계 교환관련, 무역통계는 중요한 경제
지표이자 국가통계로서 무역통계가 국가 간 큰
편차를 보일 경우, 통계의 신뢰성 저하뿐만 아니라
국가 간 통상마찰의 소지도 있는 바, 이번 약정을
통해 한·중 세관당국 간 무역통계 제도와 작성
기법 교류, 무역통계의 정기적 교환, 무역수지
비교분석 및 무역통계에 대한 객관적 조정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넷째,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 관련, 양국 간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역
원활화 정책에 편승한 불법·부정무역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세관당국은

1) 對중국,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 : '11년(2,031건, 17조원) → '12년(2,481건, 21조원) → '13년(2,533건, 30조원)

일수, 위조상표, 자기신고 농수산물 등 불법·부정 무역 단속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교환, 공조수사 실시 등 단속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인적자원 개발협력관련, 양국 간 세관 기법에 대한 경험과 사례·공유 및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제고를 통해 양국 세관직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담당 부서 간 협력강화, 교육 훈련 기관 간 상호 전문가 파견등 인적교류 실시,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기대효과

관세청은 이번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첫째, 양국 세관당국간에 기체결한 AEO MRA의 내실 있는 이행과 함께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의 신속통관 등 더욱 많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협력을 통하여 양국 세관직원의 역량과 기법을 강화하고, 우리 세관행정 제도를 중국 측에 접목해 우리에게 유리한 對중국 통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양국간 교역증진과 기업의 시장 확대를 도모 하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장벽의

4. 향후계획

관세청은 앞으로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등 전략적 협력 약정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약정 체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중 관세청장 회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중점 협력사업의 이행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약정체결에 앞서 한중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제17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약정체결의

철저수단으로, AEO 상호인정 약정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유용한 tool 이 된다.

지난해 체결한 한·중 AEO 이행협력을 두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으로 62%나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중 AEO MRA가 전면 시행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이행사항은 협의하고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한중 세관당국이 체결한 이번 약정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AEO MRA 이행협력을 위한 국장급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소 수출기업이 손쉽게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인기준을 국제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한·중 FTA가 체결되어 양국 세관당국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중소 영세기업을 포함한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2) 중국은 특별대상 수출업체에 대해 100% 사전심사를 하고 있으며, 한·중 FTA 하에서는 통 약정체결로 원산지 서류심사 소요시간 대폭 단축 가능
3) 12년 한·중 무역수지 공보치 275,697백 달러 (통·535,999백 달러) 중(중·511,1억 달러) 차지

/ <표 1> 전략적 협력약정 이행계획 /

구분	내용	비고
AEO MRA 이행	• 국장급 이행점검회의 개최 이행모니터링 강화	'15년 상반기
원산지 협력	• 원산지 실무위원회 구성 •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 • 원산지 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 개발	'14.10월 '14.9.18(서울) '15년 末
무역통계 교환	• 무역통계 자료 정기적 교환 • 무역통계 분석 및 조정 • 무역통계조정회의 개최(국장급으로 격상)	'14.8월(대분기) '14.8월(대분기) '15.4월(연 1회)
불법·부정무역 단속	• 조사부서간 수사공조 및 정보교환 • 한-중 조사실무자 회의 개최	연중 '15년
인적자원개발	• 양측 교육훈련 기간간 실무접촉 • 한-중 통관설명회 개최	'14.8월 '14.9월

또한, 악영이행과 동시 한-중 FTA 체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 실무위원회 구성, 2014 제1회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9.18), 원산지 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 개발회의 등을 적극 추진 예정이다.

중국 시기에 선측제인(先測制人), 즉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고사어가 있다. 이번에 체결된 악정을 호기로 삼아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에 날개를 달 수 있기 바라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02 FTA 최근동향

I. 관세청 주요 이슈

제27대 김낙회 관세청장 취임

세계개편을 주도해 온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계실장이 7월 25일 "제27대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계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국제 조세 관련 합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8일 제27대 관세청장 취임식에서 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은 정부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관세청을 역할을 주문하면서, 특히 △경제 활성화 지원 △임정한 세수관리 △국민건강 보호

△최소한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꼽았다.

김 청장은 또 "경제 혁신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그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우리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7월 29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세청 조직은 작지만, 단합도나 충성도는 높다"며 "특히 세계은행에서 매년 세계통관분야 순위를 매기는데 5년 연속 1등을 했을 정도로 관세 행정에 있어서 우리 관세청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사진 출처: 관세청



사진 출처: 관세청